



증례 IV-5

장기간 구치가 결손된 환자의 임플란트 수복 증례

이 호*, 김유리, 조혜원, 진태호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보철학교실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구치가 상실된 경우 적절한 수복을 해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교합 고경의 감소, 전치부 저작으로 인한 병적인 치아 이동과 동요, 과도한 피개교합의 발생, 교합의 불안정으로 인한 악관절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양측 구치가 상실된 환자의 임플란트 수복에 있어서 먼저 입시의치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관절 및 근육의 관계, 즉 중심위를 유지시킨 후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합안정장치가 중심위 관계를 유지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교합안정장치는 안정된 관절위치를 일시적으로 유지하여 근신경성 반사작용을 재형성해 주는 최적의 교합상태를 만들고 비정상적인 근활성을 감소시켜 정상적인 근육기능을 복돋워 준다. 또한 치아의 파절이나 마모를 가져올 수 있는 비정상적인 힘으로부터 치아와 지지구조물을 보호해준다.

교합안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상악에 장착되어 과두가 근골격성 안정위에 있고 치아가 동시에 균일하게 접촉되며 편심운동시 견치유도를 이루도록 제작된다. 제작방법으로는 진공성형 모형을 사용한 직접법, 자가 중합형수지를 사용한 간접법 그리고 열중합 레진을 이용한 간접법이 있다. 본 증례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구치부 상실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수복에 있어 장기간을 구치부 수복을 하지 않아 고정성 임시수복물만으로는 정확한 중심위 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로 중심위관계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근골격성 안정위를 찾아주어 최적의 교합상태를 얻기 위해 교합안정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증례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